

## C-8 치아정출술을 이용한 임상 치관 확장술

류명걸\* · 주재익 · 정현주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외과적 방법만을 이용하여 임상 치관 확장술을 시행한 경우 치은이나 치조골에 변형을 주어 심미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인접치아의 건강한 치주조직의 상실이 가능하며 술후에 치관대 치근의 비율이 부적절해고 치아동요도가 증가하거나 치근이개부가 노출될 수 있으며 치근 우식증이나 지각과민증 등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치아 정출술을 이용한 임상치관 확장술이 소개되었다. 치아정출술에는 치아의 정맹출시 치조골과 변연 치은이 동시에 치관측으로 이동되는 지연 맹출법과 지연 맹출법보다 큰 교정력을 가하면서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마다 섬유절제술을 시행하여 치조골과 변연치은은 이동하지 않고 치아만 맹출되게 하는 급속 맹출법이 있다.

치아정출술에 의해 치아는 4-6주 후에 4-5mm의 이동이 가능하며(Andreasen. 1981, Lemon. 1982, Heithersay. 1982, Ingber. 1974, Simon. 1982) 그 후 안정화 기간은 Andreasen은 약 6개월간, Heithersay과 Weine은 약 4-6주간, 그리고 Simon은 최소 8주 동안, Ingber는 일정시간을 안정시키고 치은 섬유를 절단하여 줄 경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증례들에서는 상악 전치부에서 술후 심미성 및 적절한 보철물의 제작을 위해 각각의 치주상태에 따라 고정성 장치와 가철성 장치를 이용하여 치아 정출술을 행하여 임상 치관을 증대시켰다.

증례 : 한 ○ ○ (57세, 여자환자)

교통사고 후 보철전 치주치료를 위해서 내원한 환자로 #11 치아의 생물학적 폭경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상악전치부의 심미성을 고려하여 가철성 장치를 이용한 치아정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초기 치주처치 후 3주 동안 교정력을 가하여 변연치은상방으로 2mm의 치질을 확보하고 임시 의치로 8주간 보정 후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였다.

증례 : 김 ○ ○ (50세, 여자환자)

보철전 임상치관 길이의 확보를 위해 보철과에서 의뢰된 환자로 #22 치아가 외과적 처치로 임상치관 확장술을 시행할 경우 인접치은과의 부조화가 예상되어 치아정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초기 치주처치 후 간단한 고정성 장치를 이용하여 3주 동안 교정력을 적용시켰고 이 동안에 심미성을 보완하기 위해 순측에 임시 치관을 장착시켜 치은변연으로 부터 3mm의 건전한 치질을 확보하고 6주동안 선결찰로 안정화시킨 후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였다.

결론적으로 치아정출술을 이용한 임상치관확장술은 전치부 한개 치아의 치주건강에 유리한 심미적 보철수복을 행할 수 있으며 조직의 손실이 방지될 수 있는 방법이다. 가철성 장치를 이용한 경우 호흡이나 발음 장애, 비심미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두 방법 모두 치료후적절한 보철물의 유지와 심미성의 증진을 보였다.